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6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0월 17일 (음력 8월 28일) 화요일

광주시장 이용섭 · 전남지사 이개호 '선두'

뉴시스 · 사랑방닷컴 등 1차 여론조사 결과
추석 직후 첫 조사 '지역 민심 가늠자' 될 듯

[광주전남 여론조사]

2018년 제7대 6·13지방선거가 8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쫓달민심을 동력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중간 평가 성격도 강하다. 호남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 대결구도도 주목된다.

추석 이후 민심을 처음으로 가늠할 수 있는 2018년 6·13지방선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이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또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의 경우 장휘국 현 교육감과 장만채 현 교육감이 2 위 그룹과 큰 격차를 보이며 선두를 달렸다.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사랑방닷컴 등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전남도민 1639명(광주 816명·전남 82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광주시장 선호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용섭 부위원장이 24.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윤정현 광주시장 13.8%,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11.2%, 민형배 광산구청장 7.2%를 나타냈다.

이밖에 이형석 민주당 최고위원 5.8%, 박주선 국민의당 국회의원 4.0%, 양항자 민주당 최고위원 3.9%, 최영호 남구청장 3.5%, 김동철 국민의당 국회의원 2.8%, 장병완 국민의당 국회의원 2.7%, 이병훈 민주당 동남을 지역위원장 2.4%로 그 뒤를 이었다.

전남지사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개호 국회의원이 20.7%로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국회의원이 16.1%,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14.4%, 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이 12.5%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전 순천시장 7.9%,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4.6%,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 4.2% 등의 순이었다.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은 '현지 우세 현상'을 보였다.

차기 광주시교육감 선호도의 경우 장휘국 현 시교육감이 47.2%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이어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이 16.9%를 기록했으며 이정재 전 2대 광주교육대 총장과 이정선 전 6대 광주교육대 총장이 각각 7.9%와 7.3%를 나타냈다.

차기 전남도교육감에서도 장만채 현 도교육감이 49.0%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다.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 7.5%, 장석용 전 전교조 전국위원장 5.4%, 김동철 전 전남도의원 5.3%, 정영국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4.9% 등의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98.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잘못하고 있다'는 4.3%, '어느 쪽도 아니다'는 1.6%, '모르겠다'는 1.1%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68.8%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 가운데 국민의당 12.6%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 4.2%, 비례정당 2.7%, 자유한국당 1.2% 등의 순이었다.

이윤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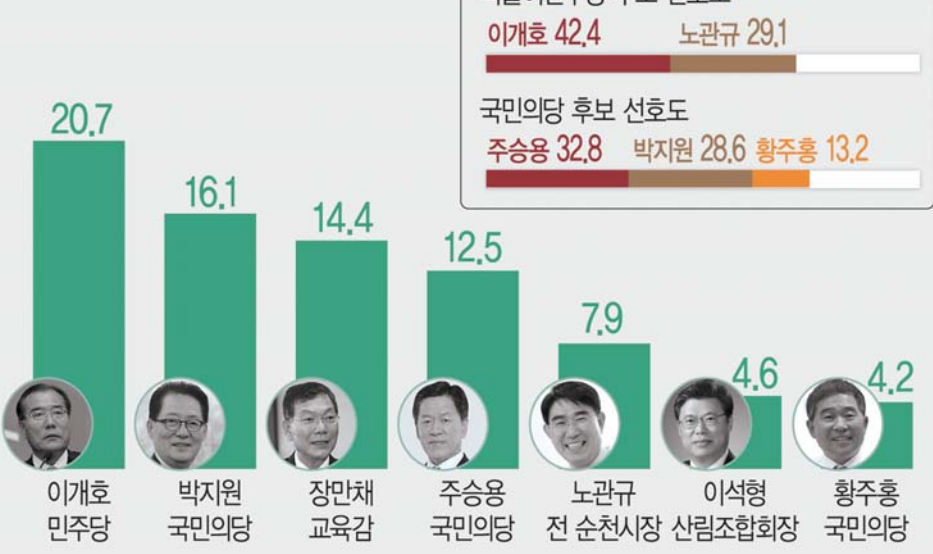
뉴시스-무등일보-사랑방닷컴 한국갤럽 공동여론조사

6·13지방선거 광주·전남 여론조사 단위%

차기 광주 시장 인물 선호도



차기 전남도지사 인물 선호도



Photo漫評

무공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전 대통령은 구속 영장이 결정된 13일 저녁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상담 담당 직원과의 면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기간 내내 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고 동아일보가 15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14일에는 평소처럼 운동하며 담당 교도관에게 "괜찮다.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전 대통령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은 상태다. 박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본다.

조인호 기자 · 자료 사진은 뉴시스



5·18 암매장 발굴되나? 옛 광주교도소 내일부터 현장조사

19일까지 이틀간...비공개 진행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들의 암매장지로 지목된 옛 광주교도소 안팎에 대한 현장 조사가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된다.

5·18기념재단은 "5·18 암매장지로 추

정되는 옛 광주교도소의 현장조사를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18일과 19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 현장 조사에 참여할 전문가와 관계자들과 일정을 조율해 이 같이 결정했다.

발굴 조사가 아닌 만큼 1980년 5월 당

시 교도소 내 지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와 발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에 함께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나면 전문가들의 일정과 날씨 등을 검토한 뒤 발굴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고 이날 안으로 발굴 조사에 들어간다.

현장 조사와 발굴 작업은 재단과 5월 단체가 주관하고, 현장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인론 공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장 조사 이후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광주교도소 외에 7공수여단이 주둔했던 제2수원지 상류쪽과 화순 너릿재 인근 등도 올해 내 발굴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조인호 기자

Jindo Culture and Art Festival / 珍島文化藝術祭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특구

보배섬 진도

진도문화예술제

2017. 10. 19. 목 - 10. 22. 일 (4일간)

장소 진도읍 향토문화회관 일원



제 25회 대한민국 우수진도개 선발대회

10. 21. (토) ~ 22. (일)
진도군 진도개테마파크 일원

제 8회 진도 꽃게 한라당 잔치

10. 21. (토) ~ 22. (일)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일원